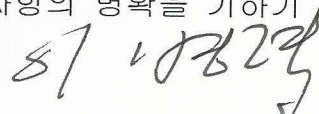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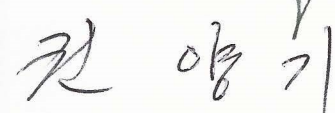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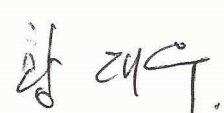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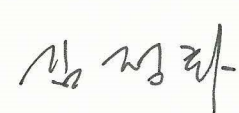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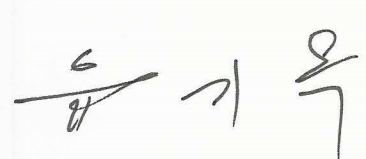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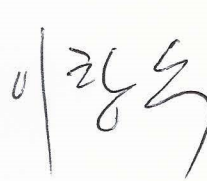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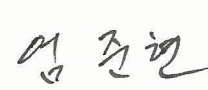


본 회 의 회 의 록

재적의원	11
참석인원	8

일시	2017. 5. 22(월) 16:30 ~ 17:10		장소	본관 1층 세미나실
• 의장 : 이병렬 • 부의장 : 이창수 • 평의원 : 총 11명 · 참석 8명(이병렬, 권양기, 조성길, 유기옥, 이창수, 황대우, 김정화, 엄준현) · 불참 3명(정문웅, 박성일, 송지용) • 배 석 : 3명(기획평가팀장 최덕환, 기획평가팀 박휘영, 대학원 교학팀 설숙희)				
•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제2호 의안 :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의 장	위 결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평의원	이병렬			
	권양기		황대우	
	조성길		김정화	
	유기옥		박성일	
	정문웅		송지용	
	이창수		엄준현	
간사	기획평가팀장 최덕환			
기록	기획평가팀 박휘영			

1. 개회선언 (16:30)

간사의 성원보고 후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의안 상정

□ 제1호 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관한 건

- 의장: 제1호 의안에 대한 설명 요청
- 대학원 교학팀 설숙희: ‘무논문학위제’를 ‘학위논문대체’로 명칭 변경, 국악과 졸업생들의 취업에 유리하도록 국악과 학위명을 ‘국악석사, 국악박사’에서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로 변경,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관광경영학과 신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조경토목공학과’를 ‘조경건설공학과’로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
- 의장: 제1호의안의 자세한 설명에 답례하고, 모든 대학원이 외국어 시험을 보는지 질의
- 대학원 교학팀 설숙희: 일반대학원만 외국어 시험을 보고 있음을 설명
- 의원: 학부에 학과가 없어도 대학원 학과 개설이 가능한지 질의
- 대학원 교학팀 설숙희: 학부에 학과가 없어도 대학원 학과 개설 요건이 충족되면 학과 개설이 가능함을 설명
- 의원: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한 경우 선수과목은 어떻게 받는지 질의, 학부가 없으면 대학원 학과 개설이 어려운건 아닌지 질의
- 대학원 교학팀 설숙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반대학원도 논문을 쓰지 않고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대학원 입학 전 경력을 인정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과목 이수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설명
- 의장: 제1호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있는지 질문함, 제1호의안의 원안에 동의하는지 질문함
- 의원들: 동의함
- 의장이 제1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모든 의원이 동의하여 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 제2호 의안: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관한 건

- 의장: 제2호 의안에 대한 설명 요청
- 기획평가팀 박취영: 2018학년도부터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80명에서 100명으로 20명 증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다른 학과들의 입학정원 조정이 있었음. 3개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 명칭 변경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
- 의장: 잦은 학과 명칭 변경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의원: 학과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학과명칭 변경 시 학과 동의를 받고 있고, 학칙 부칙부분도 학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고 되어있지만 학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학사팀에서는 학적이동을 신청 한 학생만 변경된 학과로 학적을 변경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학번에서도 학과명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재학생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 학과명칭을 변경하기 때문에 재적생을 일괄 변경된 학과명으로 학적을 변경하고 후에 학생 이의가 있으면 그 학생은 원 학적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음
- [] 의원: 황대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함
- [] 의원: 일괄 변경하는 것은 위험이 있을 듯. 현재처럼 동의한 학생만 바꾸는게 낫겠다는 의견. 학과명칭변경은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교수들의 요구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동의를 구해야 맞다는 설명
- [] 의원: 조성길 의원의 말씀처럼 학과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최대한 구하고 일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 의원: 캠퍼스 이동, 학과명칭 변경들 학생들간에 문제가 있었음. 학생들의 의견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
- [] 의장: 학칙 부칙에는 ‘원칙으로 한다.’ 는 표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대다수의 학생이 동의를 한 경우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이의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 학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 제2호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있는지 질문함, 제2호의안의 원안에 동의하는지 질문함
- 의원들: 동의함
- 의장이 제2호의안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모든 의원이 동의하여 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3. 폐회선언 (17:10)

의장이 2017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에 대해 폐회를 선언함